

[Action Plan]

강의 스크립트:

[강의 제목]: 듀얼 브레인: AI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 스마트지 일타 강사 특별 강연

[강사]: 스마트지

[강의 시작]

후배 여러분, 안녕하세요! AI 일타 강사 스마트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밤잠을 설치게 할지도 모르는, 하지만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책, 바로 "듀얼 브레인", 원서 제목 "Co-Intelligence: Living and Working With AI" 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책 표지 이미지를 보여주며) 3월 19일 출간 예정인 따끈따끈한 신작이죠. 상상스퀘어에서 야심차게 번역 출간합니다.

[강의 도입 - 세 번의 밤샘]

혹시 챗GPT, 써보셨나요? 몇 시간 정도 써봤다면, 기존 컴퓨터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걸 어렵듯이 느끼셨을 겁니다. 딱딱한 기계라기보다, 오히려 사람에 더 가깝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AI를 '제대로' 알려면, 적어도 세 번은 밤을 새워야 합니다. (웃음)

처음 챗GPT를 접하고 밤을 새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내 일자리는? 우리 아이들은 뭘 먹고 살지? 이 AI, 혹시 생각이라는 걸 할까?' 새벽이 밝아올 때쯤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죠. 그렇게 첫 번째 밤샘을 했습니다.

[AI 연구와의 인연]

저는 컴퓨터 과학자는 아니지만, 혁신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AI를 오랫동안 탐구해 왔습니다. 솔직히 과거 AI는 늘 '장밋빛 허풍'만 가득했죠. 획기적인 돌파구를 외쳤지만, 자율주행차, 맞춤형 교육... 상용화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OpenAI의 GPT 모델을 포함해 여러 AI 도구를 연구에 활용하려고 애썼지만, 글썩요...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챗GPT와의 첫 만남 그리고 두 번째 밤샘]

그러다 2022년 11월, 챗GPT가 공개되자마자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진짜가 나타났다!' 이 건 이전의 GPT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출시 나흘째 되던 날, 학부생 창업 수업에서 챗GPT 시연회를 열었죠. 놀랍게도 대부분 학생이 챗GPT를 몰랐습니다. AI가 아이디어 발상, 사업 계획서 작성, 심지어 시 쓰기(!)까지 척척 해내는 모습에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죠.

수업 후, 키릴 나우모프 학생은 챗GPT를 활용해 '움직이는 해리포터 액자' 데모 모델을 즉석에서 만들었어요. 평소 며칠 걸릴 코딩 작업을 단 몇 시간 만에 끝낸 겁니다. 다음 날 벤처 투자사들의 러브콜이 쏟아졌죠.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두 번째 밤샘을 했습니다. '이 혁명의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겠구나.'

[학생들의 변화와 질문]

AI를 접한 학생들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챗GPT에게 "어린이 눈높이로 설명해 줘" 라고 속삭이며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하더군요. 질문 많은 학생들은 이제 챗GPT라는 '만능 비서'에게 조용히 질문했죠. 과제 에세이는 문법 오류 하나 없이 완벽해졌습니다. (물론, 출처 표기는 엉망이었고, "결론적으로" 로 시작하는 뻘한 결론은 여전했지만요. 초기 챗GPT 특징이었죠.)

하지만 학생들은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AI가 방사선 판독을 하면 방사선과 의사는...?", "5년 후에도 마케터가 괜찮을까요?" 심지어 "인공 일반 지능(AGI)이 졸업 전에 나타날 수도 있나요?" 같은 질문도 나왔죠. 저도 명쾌한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소용돌이에 함께 휩쓸렸다는 것을 느꼈죠.

[협상 전문가 챗GPT, 그리고 세 번째 밤샘]

그래서 직접 AI를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5년간 기업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개발에 몰두했었는데, 챗GPT에게 이런 프롬프트를 던져봤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협상 전문가이자 개인 교사입니다. 실제 협상처럼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당신은 노련한 협상가, 저는 협상 당사자 역할을 합니다. 제 답변에 점수를 매기고, 개선점을 알려주세요. 성공하면 더 어려운 시나리오를, 실패하면 쉬운 시나리오를 제시해주세요."

챗GPT는 즉시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펜 100자루를 파는 영업사원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하죠. 정가는 자루당 1달러, 첫 제안은 50센트입니다. 어떻게 협상하시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챗GPT는 단 몇 초 만에, 허점은 있었지만, 우리 연구팀이 몇 달 밤샘하며 만든 시뮬레이션 게임과 80% 유사한 수준의 협상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냈습니다. 단 하나의 프롬프트로 요! 이때, 저는 세 번째 밤샘을 시작했습니다. 'AI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여전히 진행 중인 밤샘, 그리고 공동 지능]

솔직히 지금도 밤잠을 설칩니다. 매주 새로운 '경이로운 혁신'과 '심각한 우려'가 번갈아 나타나니까요. 챗봇에게 코드 작성을 부탁했더니 "비윤리적"이라는 답변이 돌아오기도 하고, 키워드 몇 개로 예술 작품을 똑딱 만들어내는 것을 보며 감탄하기도 합니다. 파이썬을 배운 적 없는 제가 챗GPT 도움으로 코딩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AI는 제 직업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섬뜩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저는 인간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적 외계인', 미지의 '공동 지능'과 조우한 기분입니다. 조만간 여러분도 저처럼 세 번의 밤샘을 겪게 될 겁니다.

[미래 사회의 윤곽, 범용 기술 GPT]

밤샘의 여파로 힘들지만, 미래 사회의 윤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AI는 기술 전문가들이 '범용 기술(GPT)'이라고 부르는,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혁신입니다. 증기 기관, 인터넷과 같은 **game-changing** 기술이죠. 사회 시스템, 산업 지형도를 송두리째 바꿉니다. 어쩌면 생성형 AI는 이전 GPT 혁명들을 압도하는 메가톤급 충격일지도 모릅니다.

[GPT 확산 속도, 그리고 AI의 압도적인 속도]

GPT는 일반적으로 확산 속도가 느립니다. 인터넷만 봐도 1960년대 후반에 등장했지만, 대중화는 1990년대에 와서야 시작됐죠. 웹 브라우저 개발, PC 가격 하락, 초고속 인터넷 구축까지 30년이나 걸렸습니다. 스마트폰 덕분에 소셜 미디어가 폭발하기까지는 50년이 걸렸고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컴퓨터 역시 '무어의 법칙' 덕분에 빠르게 발전했지만, 사회 곳곳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시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거대 언어 모델은 개발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챗GPT는 출시 두 달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하며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죠. 무료, 쉬운 접근성, 일상생활의 효용이라는 三要素의 완벽한 조합 덕분입니다.

AI 모델 성능은 지금도 폭발적으로 진화 중입니다. 모델 규모는 매년 10배씩 커지고, 지능은 놀라운 속도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속도가 둔화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지의 속도는 다른 어떤 기술 혁신보다 압도적입니다. LLM은 빙산의 일각일 뿐, 새로운 AI 기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AI 개발이 멈춘다 해도, AI는 이미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겁니다.

[AI, 공동 지능으로서의 파괴력]

더 놀라운 건, 이전 GPT들이 육체 노동,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에 집중했지만, AI는 '공동 지능'처럼 작동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적 역량을 증강시키거나, 심지어 대체하여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코딩부터 마케팅까지, 화이트칼라 직종 생산성이 20%에서 80%까지 증가했습니다. 산업혁명의 증기 기관이 공장 생산성을 18~22% 높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수치죠. 경제학자들은 지난 20년간 컴퓨터와 인터넷이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뒤흔드는 AI]

GPT는 일자리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 교육, 여가, 인간 관계, 자아 정체성까지 송두리째 바꿉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AI가 글쓰기 능력을 저하시킬까 우려하지만, AI 튜터는 획일적인 교육을 혁신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AI 엔터테인먼트는 개인 맞춤형 스토리텔링 시대를 열고, 할리우드 영화 산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확산은 민주적 시스템을 위협하죠. 미래는 더욱 기이하고 예측 불가능해질 겁니다. 어쩌면 이미 기이한 세상이 왔는지도 모르죠.

[방 안의 코끼리, AI라는 존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방 안의 코끼리' 같은 존재, AI 자체입니다. AI가 새로운 지능, '영혼'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퍼지고 있습니다. 챗GPT는 출시 한 달 만에 튜링 테스트, 러브레이스 테스트를 통과했고, 변호사 시험, 의사 자격시험도 척척 풀어냅니다. 창의성, 지능 테스트에서도 만점을 기록했죠. 더 불가사의한 건, 우리가 설계했고, 작동 원리도 알지만, 왜 AI가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지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AI 향해의 길잡이, 그리고 '듀얼 브레인']

저를 포함해 누구도 미래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One Useful Thing' 뉴스레터를 통해 AI 통찰을 공유하고 있고, 와튼 스쿨 경영대학원 교수로서 기술의 사회적 영향, 활용 방안을 연구해왔습니다. AI 기업들이 벤치마킹하는 AI 활용 모델을 실험했고, 기업, 정부, 학계, AI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미래 사회를 조감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AI 논문들도 꼼꼼히 챙겨보고 있죠.

AI 미래를 완벽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AI 기업들조차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새로운 문명', '공동 지능'으로서의 AI를 탐험하는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공동 지능'이라는 용어가 아직 낯설겠지만, 인류는 신체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를 만들어왔지만, 지능 자체를 고양시키는 GPT는 처음입니다. AI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일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는 '지능 파트너'입니다. AI 기업들은 '센티언트 기계', 진정한 '공동 지능'을 목표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AI 미래를 알려면, 'AI는 무엇인가?' 부터 탐구해야 합니다.

[강의 마무리 - 듀얼 브레인을 꼭 읽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듀얼 브레인" (원서: Co-Intelligence)에서 거대 언어 모델 기술부터 해부할 겁니다. AI 시스템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방법, AI가 동료, 교사, 전문가, 소울메이트(!)로서 삶을 어떻게 혁신하는지, '외계 지능'과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후배 여러분, 이 책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AI 시대, 여러분이 살아남고, 성공하고, 더 나아가 AI와 공존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생존 지침서입니다. 3월 19일, "듀얼 브레인" 꼭 구매해서 정독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스마트지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강의 종료]

[후속 질문]

- AI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듀얼 브레인"을 읽고 어떤 점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창작 요청에 대한 개선 제안]

- 강의 스크립트가 너무 길지는 않았나요? 더 압축하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해드릴까요?
- 학생들이 AI에 대해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할까요? 강의 내용에 반영하면 좋을 부분을 알려주세요.